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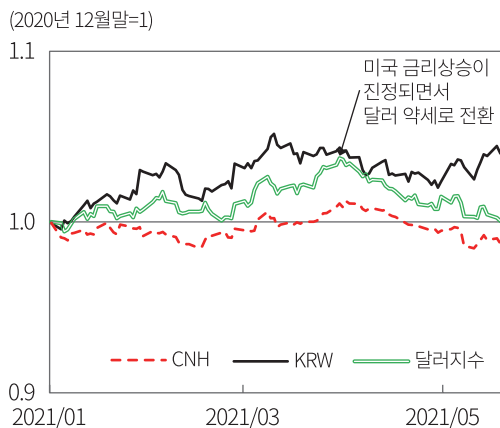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국내 또는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연된다면, 수출 위주의 국내 경제에 악영향
- 경제 정상화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미·중 갈등은 양 국가에 대한 영향도가 큰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

3. 원달러 환율 전망

가. 원달러 환율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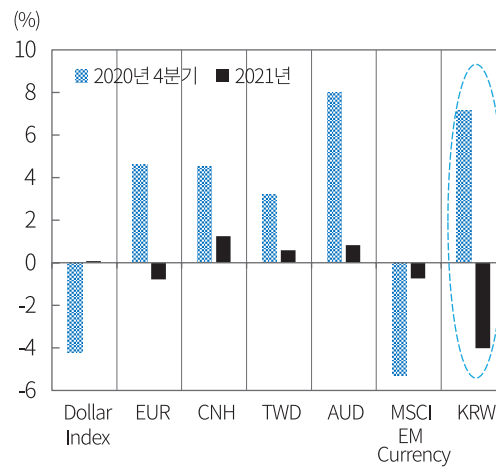
- 2021년 원달러 환율은 달러강세 시기에 상승하면서 주요 통화 대비 약세
 - 4월부터 달러강세가 진정되었지만, 원달러 환율은 1,110~1,130원대에서 등락
 - 원달러 환율은 2020년 4분기중 주요통화대비 강세였지만 반대로 2021년에 약세(환율 상승)로 전환

〈그림 II-23〉 2021년 원달러 환율 추이



주 : 2020년말 값을 1로 표준화
 자료: Bloomberg

〈그림 II-24〉 2021년 주요 통화 절상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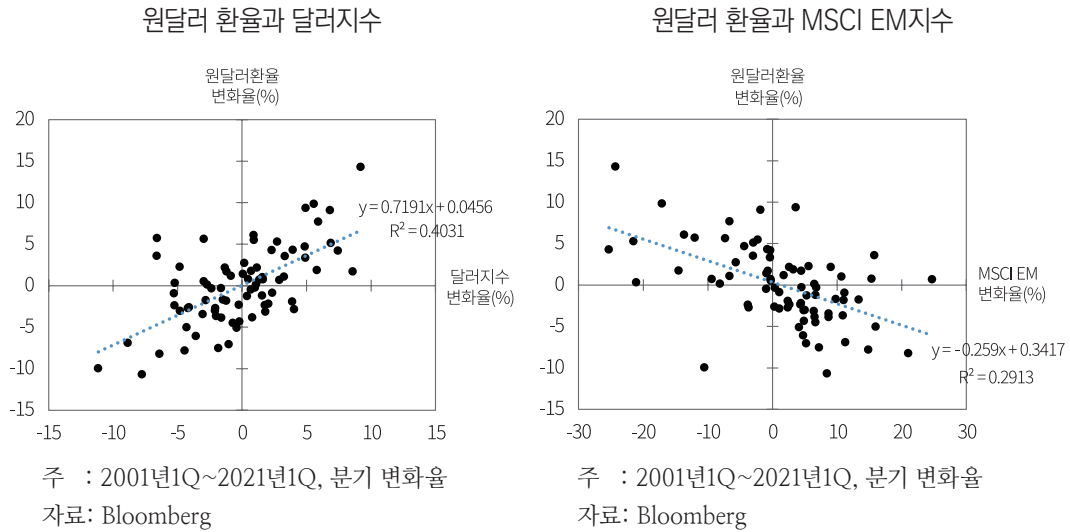
주 : 1) 2021년은 5월 17일 환율 기준
 2) 음수는 해당 통화 약세를 의미
 자료: Bloomberg

나. 원달러 환율 변화의 주요 요인

□ 원달러 환율 변화는 달러지수 및 글로벌 위험선호도에 의해 주로 결정

- 원달러 환율은 달러지수와 같이 동반 등락하는 한편,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증가(MSCI EM 지수 상승)하면 하락하는 경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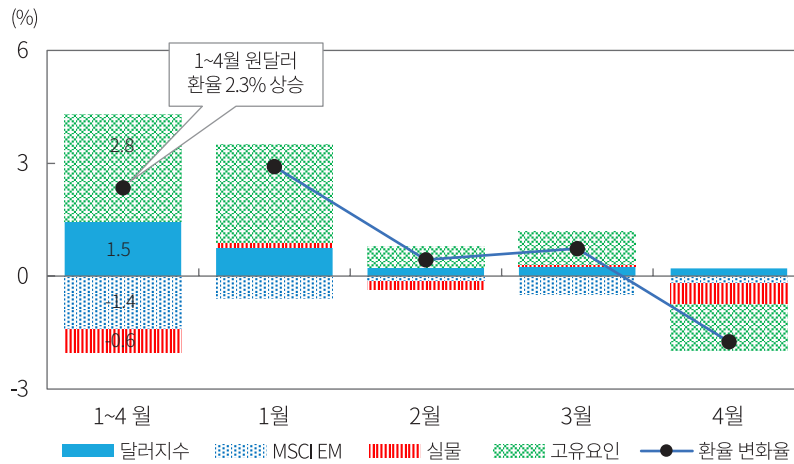
〈그림 II-25〉 원달러 환율 변화의 주요 요인



□ 2021년 원달러 환율 변화 요인으로 달러지수(+1.5%)나 MSCI EM(-1.4%) 외에 원 달러 환율 고유요인(+2.8%)의 비중이 증가¹²⁾

12) '고유요인'은 달러지수 요인, MSCI EM지수 요인, 실물경제 요인을 제외한 원달러 환율 고유의 여건을 반영(〈그림 II-26〉그래프 초록색 영역)

〈그림 II-26〉2021년 원달러 환율 변화에 대한 역사적 요인분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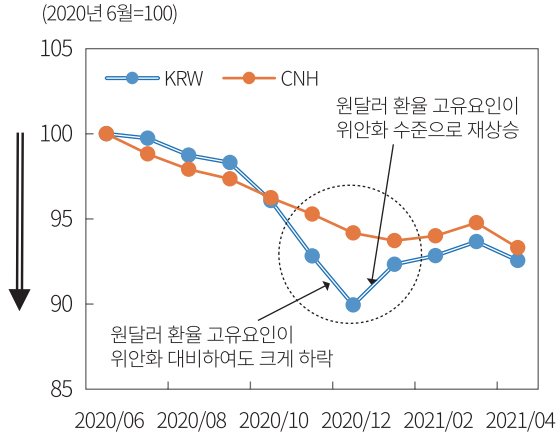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2012년 10월~2021년 4월 월별 자료 반영
 2) 실물경제는 중국과 한국의 실물경제 요인의 합계
 3) 실물경제 변수로 각국의 CAI(Current Activity Indicator)를 사용
 자료: Bloomberg, 자본시장연구원

□ 2021년 원달러 환율 상승은 2020년 4분기중 원달러 환율 고유요인의 하락으로 발생한 원화 강세(환율 하락)의 되돌림 영향으로 추정

- 2020년 4분기 원달러 환율의 고유요인은 위안화 대비로도 큰 폭으로 하락
 - 당시 고유요인의 하락은 수출 증가 기대와 양호한 방역상황,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
- 2021년 1월부터 고유요인은 상승하여 위안화 고유요인 수준으로 회복
 - 수출 증가는 가시화되고 있지만, 외국인 주식 매도나 해외주식 등 해외 투자 증가, 원자재(원유)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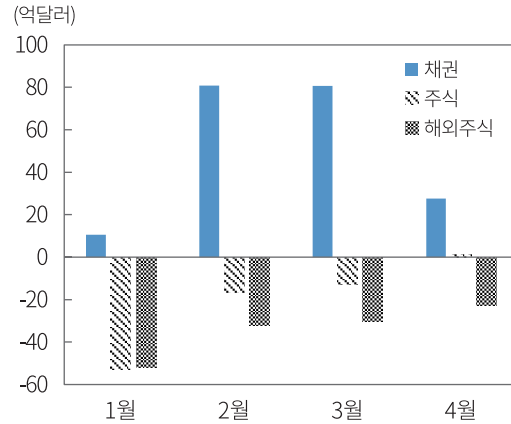
〈그림 II-27〉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 환율의
고유요인 추이



- 주 : 1) 통화별 고유요인으로 생성한 가상환율
2) 2020년 6월말을 100으로 표준화
3) 화살표 방향이 원화 및 위안화 강세 (환율 하락)

자료: Bloomberg, 자본시장연구원

〈그림 II-28〉 해외 관련 증권자금



- 주 : 1) 주식, 채권은 외국인 순매수 금액
2) 해외주식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금액
3) 월평균 환율로 달러로 환산

자료: Bloomberg, 자본시장연구원

다. 2021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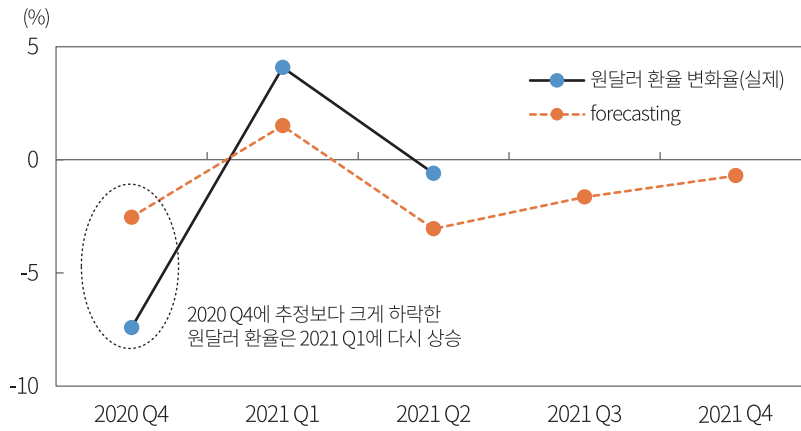
□ 원달러 환율은 2021년 수출 호조와 국내 성장률 회복 영향으로 하향 안정화 전망

- 2021년은 수출 증가와 함께 국내 경기순환 상 회복 및 확장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
 - 달러지수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,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로 환율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
- 2021년말 원달러 환율은 1,095원(하반기 범위 1,060원~1,140원) 수준 전망
 - 2018년 상반기 미·중 무역분쟁 발생 전 수준인 1,060원을 레인지 하단으로, 올해 고점 수준인 1,140원을 레인지 상단으로 예상
- 인플레이션 위험 증가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(긴축) 가속화는 달러지수 상승과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

— 코로나19 상황 악화나 미·중 갈등 심화는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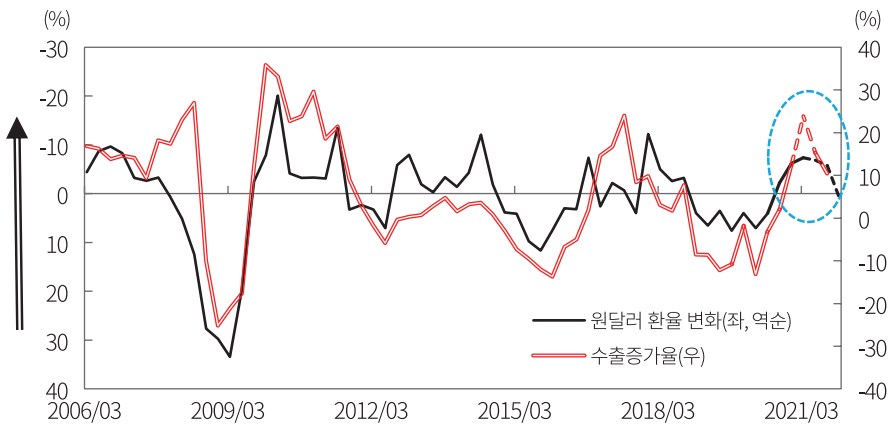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국내 또는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연된다면, 수출 감소와 함께 국내 성장률도 하락
- 경제 정상화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미·중 갈등은 양 국가에 대한 영향도가 큰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

〈그림 II-29〉 2021년 성장률을 반영한 원달러 환율 변화율 추정



자료: Bloomberg, 자본시장연구원

〈그림 II-30〉 원달러 환율 변화와 수출 증가율 추이



- 주 : 1) 원달러 환율 변화율은 4분기 이동평균(연율)
 2)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1분기 후행으로 표시
 3) 2020년 2분기 수출은 1,2분기 평균으로 smoothing하여 산출
 4) 점선은 전망치를 반영, 화살표는 원화 강세 방향을 표시

자료: Bloomberg, 무역협회